

‘-르지/-을지’는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므로 앞말 어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5년 6월 13일 서울시 9급

2015. 06 . 13.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간에 붙여 쓴다.

5. 다음 중 국어의 ‘형태적’ 특징은?

- 수식어는 반드시 피수식어 앞에 온다.
-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이 유사하다.
- 문장 성분의 순서를 비교적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 언어 유형 중 ‘주어-목적어-동사’의 어순을 갖는 SOV형 언어이다.

답 ②

국어의 문법적 특성은 형태적 특성과 통사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형태적 특성은 단어 형성, 품사 및 조사나 어미 관련 현상을 말한다. 둘째, 통사적 특성은 구성, 성분, 어순, 구성의 기능 및 문법 요소와 관련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②는 용언의 어미 활용에 관한 것이므로 형태적 특성이며, ①,③,④는 국어의 통사적 특성에 해당한다.

[참고] 국어의 문법적 특성

1. 문법적 특성의 구분

- 형태적 현상 : 단어 형성, 품사 및 조사나 어미 관련 현상
- 통사적 현상 : 구성, 성분, 어순, 구성의 기능 및 문법 요소와 관련되는 현상

6.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 서비스 - 소시지 - 소파 - 싱크대 - 팜플렛
- 리더쉽 - 소세지 - 싱크대 - 서비스 - 스카우트
- 쇼파 - 씽크대 - 바디로션 - 슈퍼마켓 - 스카웃
- 소파 - 소시지 - 슈퍼마켓 - 보디로션 - 팜플릿

답 ④

① 팜플렛 → 팜플릿

- 서비스(service) : 남을 위하여 돕거나 시중을 돕. ‘봉사’, ‘접대’로 순화. [s]는 모음 앞에서 ‘ㅅ’, 자음 앞에서는 ‘스’로 옮겨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영어 마찰음 [s]는 ‘씨비스, 씨시스템, 쉐터’가 아니라 ‘서비스, 시스템, 센터’이다. 씨비스(X), 서서비스(X), 씨서비스(X)
- 소시지(sausage)의 발음은 [so : sidʒ]이다. 이를 표기하면 ‘소시지’가 옳다. 소세지(X), 쏘시지(X), 쏘세지(X)
- ‘소파(sofa)’는 발음이 [sóufə]로 이에 따라 표기하면 ‘소퍼’가 옳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 용례의 표기원칙>에 따르면, 어말의 ‘-a[ə]’는 ‘아’로 적는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소파’가 올바른 표기이다. 쏘파(X), 쇼파(X), 쏘파(X)
- 싱크대[sink臺]는 조리할 재료를 다듬거나 씻거나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든 부엌 공간. ‘개수대’, ‘설거지대’로 순화. 씽크대(X)
- 설명이나 광고, 선전 따위를 위하여 알파하게 맨 작은 책자를 일컬어 ‘팜플릿(pamphlet)’이라 한다. ‘소책자’나 ‘작은 책자’로 순화해야 할 단어이다. 이 단어는 발음이 [pæmfliit]이다. 이에 따라 표기하면, ‘팜플릿’이 옳다. 팜플레트(X), 팜플렛(X), 팜플렛트(X)

② 리더쉽 → 리더십, 소세지 → 소시지

- [ʃ]가 [i] 모음 앞에 올 때에는 ‘시’로 적는다. 따라서 ‘리더십(leadership)’으로 표기하며, ‘지도력’, ‘통솔력’으로 순화되었다. 리더쉽(X), 리더더십(X)
- ‘스카우트(scout)’는 우수한 운동선수 또는 연예인, 특수 기술자와 같은 인재를 물색하고 발탁하는 일. ‘고르기’, ‘골라 오기’로 순화. 스카웃(X)

③ 쇼파 → 소파, 씽크대 → 싱크대, 바디로션 → 보디로션, 슈퍼마켓 → 슈퍼마켓, 스카웃 → 스카우트

- 보디로션(body lotion)은 몸에 바르는 로션. 주로 목욕 후에 바른다. 보디(body)(○), 바디(×), 바디로션(X), 보디로손(X), 바디로손(X)단어장
- ‘super’는 ‘슈퍼’로 적으므로, ‘슈퍼맨(superman)’, ‘슈퍼마켓(supermarket)’과 같이 적는다. ‘슈퍼마켓(supermarket)’을 비롯하여 ‘super-’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수퍼-’가 아닌 ‘슈퍼-’로 적는 것은, 발음을 기준으로 외래어를 표기하는 기준에 따른 것인데, ‘super-’의 발음이 [su:-] 또는 [sju:-]두 가지로 나지만, 그 중 널리 쓰인다고 판단되는 [sju:-] 발음을 기준으로 하여 표기를 한 것이다. 슈퍼마켓(X), 슈퍼마켓(X)

7. 다음 중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은?

- 철수는 우리 반에서 키가 열둘째이다.
- 요즘 재산을 떨어먹는 사람이 많다.
- 나는 집에 사흘 동안 머무를 예정이다.
- 숫병아리가 내게로 다가왔다.

답 ③

① 열둘째 → 열두째

‘둘째’의 경우에는 차례를 나타내는 말(서수사)로 앞에 다른 수가 올 때에는 받침 ‘ㄹ’이 분명히 탈락한다. 따라서 ‘열두째, 스물두째, 서른두째’의 경우처럼 ‘두째’를 쓴다. 그러나 수량을 나타내는 경우(양수사)에는 ‘열둘째, 스물둘째, 서른둘째’와 같이 쓴다. 즉 ‘열두째’는 열두 번째가 되는 차례를, ‘열둘째’는 세어서 열두 개째가 됨을 뜻하는 말이다.

예 이 줄 열두째에 앉은 애가 내 친구 순이야.

이것이 오늘 채점하는 열둘째 답안지이다.

② 떨어먹는 → 떨어먹는

‘재산이나 돈을 함부로 써서 몽땅 없애다’는 뜻은 ‘떨어먹다’이다. 떨어먹다(×)

③ 머무르+=<관형사형 어미>

본말인 ‘머무르다’와 준말인 ‘머물다’가 모두 널리 쓰이므로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머무를’ 또는 ‘머물(머물+=)’도 바른 표기이다.

④ 숫병아리 → 수평아리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하며, 접두사 ‘수-’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하므로 ‘수평아리’를 표준어로 삼는다.

8.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한자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언가를 상실해버린 느낌을 지니고 성장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내가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꼬치꼬치 캐물을 때가 종종 있지요. 게다가 시골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이 내 눈엔 참 이상했어요. 마당에다 애써서 기른 짐승들을 잡아먹는 것도 이상했고, 겨울을 잘 넘기고 해동이 될 때면 마을에 상여가 나가는 일이 많은 것도 이상해서 계속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 상실 : 喪失
- 성장 : 盛裝
- 이상 : 異狀
- 해동 : 解冬

답 ①

①은 문맥상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짐’을 뜻하는 ‘상실(喪失)’이 바르게 쓰였다.

① 상실(喪失 : 喪 잃을 상/失 잃을 실) ㉠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짐. ㉡ 어떤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지게 됨.

[동음이의어]

- 상실(詳悉 : 詳 자세히 상/悉 다 실) 내용을 빠짐없이 자세히 앎.
- 상실(桑實 : 桑 뽕나무 상/實 열매 실) 오디(뽕나무의 열매).
- 상실(橡實 : 橡 상수리나무 상/實 열매 실) 상수리(상수리나무의 열매).

② 성장(盛裝) → 성장(成長)

- 성장(盛裝 : 盛 성할 성/裝 꾸밀 장) 잘 차려입음. 또는 그런 차림.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5년 6월 13일 서울시 9급

2015. 06 . 13.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성장(成長 : 成 이룰 성/長 길 장)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
- 성장(盛壯 : 盛 성할 성/壯 장할 장) 힘이나 혈기(血氣)가 왕성(旺盛)함
- ③ 이상(異狀) → 이상(異常)
- 이상(異狀 : 異 다를 이/狀 형상 상) ㉠ 평소와는 다른 상태. ㉡ 서로 다른 모양.
- 이상(異常 : 異 다를 이/常 항상 상) ㉢ 정상적인 상태와 다름. ㉣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지식과는 달리 별나거나 색다름. ㉤ 의심스럽거나 알 수 없는 데가 있음. ㉥ 신체, 정신, 기계 등의 기능이나 활동이 원활하지 못함.
- 이상(異象 : 異 다를 이/象 코끼리 상) ㉦ 이상한 모양. ㉧ 특수한 현상.
- 이상(以上 : 以 써 이/上 윗 상) ㉨ 순서나 위치가 일정한 기준보다 앞이나 위. ㉩ 이제까지 앞에서 말하거나 이야기한 내용. ㉪ 강연, 보고 등의 마지막에서 쓰여 앞에서 이야기된 것의 끝맺음을 나타내는 말.
- 이상(理想 : 理 다스릴 이/想 생각 상)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
- ④ 해동(解冬) → 해동(解凍)
- 해동(解冬 : 解 풀 해/冬 겨울 동) 승려들의 동안거(冬安居)의 끝. 선원에서는 정월 보름날에 끝난다.
- 해동(解凍 : 解 풀 해/凍 얼 동) 얼었던 것이 녹아서 풀림. 또는 그렇게 하게 함.
- 해동(孩童 : 孩 어린아이 해/童 아이 동) 젖먹이, 어린아이(나이가 적은 아이).
- 해동(海東 : 海 바다 해/東 동녘 동) 발해(渤海)의 동쪽이라는 뜻으로, 예전에 '우리나라'를 이르던 말.

9. 다음 중 <보기>와 같은 서술 방식이 쓰인 문장은?

<보기>

포장한 지 너무 오래되어 길에는 흙먼지가 일고 돌이 여기저기 굴러 있었다. 길 양쪽에 다 쓰러져가는 집들, 날품팔이 일꾼들이 찾아가는 장국밥집, 녹슨 함석지붕이 찌그러져 있었고, 흙먼지가 쌓인 책방, 조선기와를 올린 비틀어진 이층집, 복덕방 포장에 찢기어 너풀거린다.

- ① 탈피 후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먹이를 먹고 자리를 떠났다.
- ② 앞은 어긋나게 붙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면서서 뒤틀기를 감싼다.
- ③ 사람을 접대하는 것은 글을 잘 짓는 것과 같다.
- ④ 성장이 둔화되어 일자리가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답 ②

※출전 : 박경리, '시장과 전장'

6.25 전쟁 당시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다.

①은 서사, ③은 유추, ④는 인과.

10. 다음 문장들을 미괄식 문단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문맥상 전개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ㄱ. 숨 쉬고 마시는 공기와 물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고, 자원의 고갈, 생태계의 파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 ㄴ. 현대인들은 과학 기술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의 혜택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 ㄷ. 자연 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등으로 인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도처에서 높아지고 있어서, 핵전쟁이라도 터진다면 인류의 생존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 ㄹ. 이런 위기들이 현대 과학 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 ㅁ.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면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는 심각한 현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① ㄱ - ㄷ - ㅁ - ㄹ - ㄴ
- ② ㄴ - ㄹ - ㅁ - ㄱ - ㄷ
- ③ ㄴ - ㅁ - ㄱ - ㄷ - ㄹ
- ④ ㅁ - ㄹ - ㄱ - ㄷ - ㄴ

답 ③

미괄식 문단으로 구성하는 것이므로 주지 문장이 문단의 마지막에 위치한다. <보기>의 글은 과학 기술의 낙관적 전망에 대한 위험성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ㄹ' 문장이 마지막에 온다.

※출전 : 박정하, '과학 기술의 두 얼굴'

ㄴ : 도입 : 현대인들의 '과학 기술의 대한 낙관적 전망'

ㅁ : 반론 : (그러나:역접) 낙관적 미래 전망이 가벼움을 깨닫게 하는 심각한 현상

ㄱ : 구체적 사례 : 오염과 생태계 파괴

ㄷ : 구체적 사례 첨가 : 자연 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전쟁의 발발 가능성

ㄹ : 결론 : 이런 위기들이 '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의 위험성을 깨닫게 한다.

11. 다음 글의 논리적 구조로 가장 옳은 것은?

자유란 인간의 특성 중의 하나로서 한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한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사회적인 여러 제약들, 가령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제도나 권위, 혹은 억압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거리가 확보되면 될수록 개인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당하며 동시에 안정성과 소속감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적나라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새롭게 나타난 고독감이나 소외감, 무력감이나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감행하게 된다.

- ① 원인-결과
- ② 보편-특수
- ③ 일반-사례
- ④ 주장-근거

답 ①

※출전 : 에리히 프롬, 『자유로부터의 도피』

• 원인 : 개인이 사회적인 여러 제약들로부터 거리가 확보되면 될수록 개인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당하며 동시에 안정성과 소속감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적나라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 결과 : 새롭게 나타난 고독감이나 소외감, 무력감이나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5년 6월 13일 서울시 9급

2015. 06 . 13.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위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감행하게 된다.

12. 다음 중 서울을 주요 배경으로 한 소설이 아닌 것은?

- ① 박태원의 『천변 풍경』
- ② 염상섭의 『두 파산』
- ③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 ④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답 ④

- ① 1930년대 후반 서울 청계천을 배경으로 한 세대소설이다
- ② 1940년대 후반, 해방 이후의 서울 황토현 근처(공간적 배경은 해방 직후 서울 황토현이라는 구차한 현실 공간이며, 시각적 배경은 현재와 과거 회상 등은 혼재로 일상적 삶의 시간이 설정되었다.) '황토현은 현 세종로 사거리의 남쪽 대평로 부근이다.
- ③ 해방 직후의 사대문(四大門) 밖 현저동(지금의 무악동)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시골에 살던 엄마와 '나'가 서울 생활에 정착하는 과정과 6·25 전쟁의 비극과 분단 고통의 극복 의지를 다룬 작품이다.
- ④ 이 작품은 1960년대 전남 고흥군 소록도 '나환자촌'을 작품의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여, 현실의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현실과 격리된 공간을 통해, 이곳으로 내몰린 나환자들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원장들에 의한 억압과 착취를 다룬다.

13. 다음 밑줄 친 ㉠~㉣ 중 그 의미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워락카노, 저 편 강기슭에서

㉠ 니 워락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든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워락카노 워락카노

㉢ 씌어서 동아뱃줄은 삭아 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하직을 말자

㉣ 인연은 갈발을 건너는 바람

- 박목월, '이별가'

- ① ㉠
- ② ㉡
- ③ ㉢
- ④ ㉣

답 ④

- ㉣은 화자의 인식의 변화가 드러난 부분으로, 연결의 매개체인 '바람'을 통하여 저승까지 인연이 이어짐을 깨닫는 부분이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인연이 드러나 있다. ㉠,㉡,㉢은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 소멸과 단절의 표현이다.
- ㉠과 ㉡은 죽은 이와 화자와의 거리, 즉 이승과 저승 사이의 아득한 거리감을 표현한 부분이다. 바람 때문에 주고받는 목소리가 흩어져 잘 들리지 않는 상황으로, 답답함과 안타까움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다.
- ㉢은 죽음으로 인하여 망자와의 이승에서의 인연이 다하고 소멸되어 감을 비유한 표현이다.
- ㉣은 화자의 인식의 변화가 드러난 부분으로, 연결의 매개체인 '바람'을 통하여 저승까지 인연이 이어짐을 깨닫는 부분이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인연이 드러나 있다.



※박목월, '이별가'

- 1. 운율 : 3음보 위주
- 2. 표현상 특징
 - (1) '워락카노'라는 시어의 점층적인 반복을 통하여 고조된 시적 화자의 감정(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 (2) 각 연마다 말끝을 감추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3) 사투리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현실감과 운율의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다.
 - (4) 일상적 대화의 말투를 구상함으로써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대화 형식의 서술이 주는 효과

이 시는 이승에 있는 가상적인 시적 화자를 설정하여 화자와 청자가 대화를 나누는 듯한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워락카노'라는 방언이 제시하는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과 '오냐, 오냐, 오냐'라는 수궁하는 듯한 대답은 작품 전체의 사상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작품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3. 주제 : 삶과 죽음을 초월한 이별의 정한(인연과 그리움)

4. '바람'의 이미지

시적 화자와 그와의 인연은 '갈발을 건너는 바람'이라 선언하여 삶과 죽음을 가르는 강이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우리가 맺은 인연의 바람은 그것을 뛰어넘어 끊임없이 불어 가고 불어오고 할 것임을 확실하게 된다. 따라서, '바람에 불려서'와 '바람에 날려서'처럼 장애물의 이미지로 사용되던 '바람'은 시적 화자와 '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변하게 된다.

14. 다음 시조와 가장 유사한 정서가 나타난 것은?

방안에 헛는 촛불 놀과 이별 허엿관디,
것초로 눈물 디고 속 타는 줄 모르는고
더 촛불 날과 갓트여 속 타는 줄 모르도다

- ①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 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라마논
다정도 병인 양하야, 좀 못 드러 허노라.
- ② 훈 손에 막디 잡고 쏘 훈 손에 가식 쥐고
늙는 길 가식으로 막고 오는 백발 막디로 칠엿튼이
백발이 제 몬져 알고 즈럼길노 오더라
- ③ 이화우 훗썩릴 제 울며 잡고 이별훈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논가
천 리에 외로운 쏜만 오락가락 허노매라
- ④ 막을 사름들야 올흔일 허자스라
사름이 되여 나셔 올치못 못하면
막쇼를 갓 곳갈 뵙워 밥머기나 다룩라

답 ③

<보기>의 시조는 이개의 작품으로,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자, 단종과의 이별을 촛불에 이입시켜 그 슬픔과 그리움을 노래한 시조이다. 초장과 중장은 인과 관계로 연결되었으며, 중장은 주제장으로 지은이의 감정이 이입된 구절이다.

- ① 이조년의 '다정가(多情歌)'로서, 봄날의 한방종을 배경으로 하여 애상적인 정서를 표현하였다.
- ② 우탁의 탄로(歎老 : 늙음을 한탄)에 대한 작품이다.
- ③ 계랑의 작품으로, 배꽃이 봄날 내리는 비처럼 날릴 때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표현되었다.
- ④ 정철의 '훈민가(訓民歌)' 중 '향려유례(鄉閭有禮)'라는 제목이 붙은 것으로, 선행

Page 5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5년 6월 13일 서울시 9급



2015. 06 . 13.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유] 교외별전(敎外別傳), 불립문자(不立文字), 심심상인(心心相印), 영화미소(拈華微笑), 영화시중(拈華示衆)

19. 다음 중 <보기>의 뜻으로 옳은 것은?

<보기>

털을 뽑아 신을 삼는다.

- ① 힘든 일을 억지로 함
- ②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여 은혜를 꼭 갚음
- ③ 모든 물건은 순리대로 가꾸고 다루어야 함
- ④ 사리를 돌보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통으로 먹으려 함

답 ②

<보기>의 속담 ‘털을 뽑아 신을 삼는다’는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여 은혜를 꼭 갚겠다는 말이다. 즉 ‘결초보은(結草報恩), 각곡난망(刻骨難忘)’의 의미이다. 유사한 속담으로는 ‘머리털 베어 신을 삼는다’가 있다.

- ①은 ‘울며 겨자 먹기’
- ③은 ‘털도 내리쓸어야 빛이 난다’
- ④는 ‘털도 안 뜯고 먹겠다 한다’

20. 다음 제시된 단어 중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봐란듯이 : 우쭐대고 자랑하듯이
- ② 가뭇없이 : 보이던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 찾을 곳이 감감하게
- ③ 오롯이 :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 ④ 대수로이 : 그다지 훌륭하지 아니하게

답 ④

④의 ‘대수로이’는 ‘중요하게 여길 만한 정도로’의 뜻을 지닌 부사이다. ‘그다지 훌륭하지 아니하게’의 뜻을 지닌 부사는 ‘하찮이’이다.

① 여봐란듯이 : ㉠ 우쭐대고 자랑하듯이, ㉡ 남들 앞에서 자랑스럽거나 당당하게.

예 우리도 이제부터는 여봐란듯이 살아 보자.

② 가뭇없이 : ㉠ 보이던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 찾을 곳이 감감하게 ㉡ 눈에 띄지 않게 감쪽같이.

예 그토록 아끼던 반지가 가뭇없이 구멍에 떨어졌다.

③ 오롯이 :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예 이 책에는 옛 성인들의 가르침이 오롯이 담겨 있다.

[동음이의어] 오롯이 : 고요하고 쓸쓸하게.

예 새벽하늘에 작은 별 하나가 오롯이 빛나고 있다.

④ 대수로이 : 주로 부정문이나 반어 의문문에 쓰여 중요하게 여길 만한 정도로. 대수로이(×)

예 한두 끼 굶는 것쯤은 대수로이 생각하지 않았다.

[참고] 하찮이 : ㉠ 그다지 훌륭하지 아니하게. ㉡ 대수롭지 아니하게.